

## 구성원 논의 없이 도입 논란

### 계절학기 강화 등 도입목적 재검토 필요

#### 수업 15주 단축 진단

지난 학기 '월드컵 때문'이라고만 알려졌던 학사일정 15주 단축이 이번 학기에도 진행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업일수 단축의 과정에서 학내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의 경우 교수들이 수업일수 조정 이유를 알지 못해 수업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각 단과대 교학과 및 학장들이 학사일정 변화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됨에 따라 외부 강사의 경우 애초 강의계획을 16주에 맞춰 세우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과학대 교학과와 한 관계자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 강사의 경우 편의상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수업이 15주로 줄어든 것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미립(신방2) 양은 "같은 분량의 내용을 한 주 줄어든 기간동안 배우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된 학사일정 단축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달 26일 신재호(전자공학) 교무처장에게 면담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대는 지난 학기, 3학기제 도입을 위해 계절학기를 강화했으며 많은 대학들도 계절학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절학기의 연장은 하나의 추세라 됐다. 이에 맞춰 본교는 지난 학기부터 3학기제 채택 여부 검토 8개월간 수업기간 연장 △학교 행사 때문에 생긴 결손 수업 보충 등의 이유로 수업일수를 학기 당 16주에서 15주로 개편했다. 하지만 이번 학사일정 단축은 교수, 학생 등 학내 주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돼 혼란이 일어났다. 서울대의 경우 그 동안 3학기제 도입 계획을 학내 주체들에게 공공연히 알리고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15주 수업

을 채택한 반면 본교의 경우 3학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상 수업일수는 연 30주 이상이기 때문에 본교의 학기 당 15주 수업은 현행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이 수업일수 15주 단축에 대해 채 인식하지 못한 시점에서 개편이 진행됐다는 점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수업일수 단축이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내 주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재검토가 시급한 때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 도서관 24시간 개방

### 면학분위기 조성 위해 시범 운영

본교가 본격적으로 면학 분위 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오늘부터 한 달간 1층 제1열람실을 24시간 시범 개방한다.

이번 시범 개방은 '공부하는 대학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복지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시범 개방 기간 후 학생들의 이용정도에 따라 지속 실시 여부와 신관 이전 이후 실시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범 개방기간 중 학생들의 이용빈도가 높으면 열람실 24시간 개방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열람실은 학생들의 이용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도 학술 세미나 등 학술적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달간 시범 운영되는 1층 제1열람실은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개방 시간 중 오전 한 시부터 다섯 시까지 건물 출입이 통제된다. 또한 청소시간인 5시부터 1시간 동안은 퇴실해야 한다.

연세대, 건국대 등 몇몇 대학은 현재 일부 열람실에 한해 24시간 개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본교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실을 시범 개방해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시범 개방 기간 동안 학생들의 호응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의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음주 후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 등 관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본교는 앞서 24시간 개방을 시작할 타대학의 상황을 참고해 경비강화 등 보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dmz@dongguk.edu

## 교원 보직 인사 발령 대학원장 등 총 5명

본교는 지난 1일 교원보직인사를 발령했다.

보직교수에는 서울캠퍼스 △대학원장=임기중(국어국문학) △불교문화연구원장=이법산(선학) 경주캠퍼스 △상경대학장=임배근(경제학)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조영석(컴퓨터학) △의학연구소장=임현술(의학) 등이 임명됐다.

한편, 같은 날 발령된 신규임용교수는 서울캠퍼스 △서인범(사학) △김선웅(통계학과) △박명호(정치외교학) △이광근(식품공학), 경주캠퍼스 △안양규(불교학) △이희욱(미술학) △오창민(미술학) △조영곤(경영학) △하권익(의학) △이선주(의학) △이재경(의학) △신혜경(의학) △이영실(의학) △김남일(의학) 등 총 16명이다.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

### 최초 불교전문대학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오늘(2일) 개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는 불교학, 선학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며 얼마전 본교에서 퇴임한 목청매(불교학)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됐다.

## 영화과 민병록 교수

### 전주영화제 집행위원장 선출

영화영상학과 민병록 교수가 지난달 25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김완주 전주시장) 집행위원장에 선출됐다. 올해로 3년을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동안 대안 영화를 소개하고 디지털 영화를 상영·지원해 왔다.

한편, 민 교수는 현재 한국영화학회장 영화진흥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상 시상과 국제영화제 참가 △국산영화 수출 및 외국영화 수입 △시나리오 공모를 통한 창작 지원 등의 영화진흥사업을 벌이고 있다.

## 1차 가을특강 개강

### 9일부터 5주간 진행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 1차 가을특강이 오는 9일 개강한다.

5주간 진행되는 이번 가을특강의 개설강좌는 △영어회화 △영어회화 특강 △Screen English △Writing & Speaking △Business English △CBT TOEFL △독해를 위한 대학영문법 등 7강좌이다.

또한 수강생에게는 △모의 토익 무료 응시 △2과목 동시 수강시 1만원 할인 △웹 토익 무료 수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제8대 교수회장 박종훈 선임

### "지난 학기 준비한 총장직선제 성사할 것"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 8대 교수회장에 박종훈 교수가 선임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교수회 총회에서는 교수회장을 비롯해 새 임원단으로 △부회장=인호일(독일학) △감사=이명훈(식물자원학) 교수가 선출돼 7대 교수회 임원진이 모두 선임됐다.

이번 선출은 7대 교수회장의 잔여임기 6개월이 끝나 새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교수회장은 "지난 임기부터 추진했던 이번 15대 총장선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투표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8대 교수회 임원은 오는 2004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열린 교수회 총회에서는 △총장선출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결산보고 등이 진행됐다.

##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과제 선정

### 인문사회·대학교육과정 분야 14개 뽑혀

본교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에 인문사회분야 5개 과제, 대학교육과정분야 9개 과제를 선정 받아 총 11억7천여 만원을 지원받는다.

인문사회 분야는 △고유환(북한학) 교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연구:정치·군사·외교분야·문화 등'=6억3천여 만원 △임기중(국어국문학, 한국문화연구소장) 교수 '연행록 해제 연구'

=3억5천여 만원 △이법산(선학) 교수의 '조선불교통사'=3억여 원 등이다.

대학교육과정 분야는 김형상(물리학) 교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기초과학의 학습지도 개선방안 연구'=5천여 만원 △박명희(가정교육) 교수 '대학교수학습방법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4천3백여 만원 등이다.



## 고인을 보내며 ...

지난달 29일 중앙공원에서 통일운동가 고 문재룡 선생 영결식이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문재룡 선생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장=이종린)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한

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쳤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 IT 연수단 파견 교육 실시

### 본교 29명 참가 ... 어학연수 병행

해운대대학교에서 IT 교육연수를 받게될 '캐나다 UBC 연수단 발대식'이 지난달 27일 다함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보통신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본교 학생 29명이 참여하는 이번 '해운대 IT 교육기간 파견·교육'은 IT 관련·영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 출발한다.

서류·면접으로 선발한 이들 29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IT관련학과 학생들이며 1인당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해외교육 기간에 이수한 학점은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해준다.

## 생협 독립법인 추진위원회 발족

### 2주마다 심의 진행해 이사회 상정

생활협동조합(이사장=허천택·영어영문학, 이하 생협) 독립법인 추진을 위한 기구가 발족했다.

약 한 달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6일 정식 출범한 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유덕기·생명자원사)는 △교수 △직원 △대학원 △학부 이사 각 한

명과 실무간사가 위원으로 구성돼 생협 독립법인 추진과 경영개선 관련 심의를 하게 된다.

위원회는 생협 독립법인 추진이 완료될 무렵까지 2주마다 심의를 진행하며 심의된 안건은 이후 생협 이사회에 상정된다. 다음 생협 이사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 보리소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제자가 질문을 했다.

"부처님, 만약 비구로서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다섯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반드시 사실이여야 하고, 둘째 말할 때를 알아야 하고, 셋째 이치에 합당해야 하며, 넷째 부드럽게 말해야 하며, 다섯째는 자비심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을 말했는데도 성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

서 말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잡아할 18권 '거죄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말을 많이 하며 살아야하는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경구이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란 쉽지 않다.

최근 어느 정당이 한 방송사를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자 방송사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방송통제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언론 보도

에 대해 반론을 퍼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경우 언론탄압으로 비춰진다. 5공화국 때의 '보도지침'의 기억이 아직은 생생한데다 방송4사 노조의 공동성명 역시 이번 사태를 군사정권적 '신보도지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당 쪽의 말은 사실인가, 때는 잘 고른 것인가, 주장이 이치에 합당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힘의 논리가 앞서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방

송사가 성을 내는 것이라면, 정당 쪽은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말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언론 길들이기"로 보는 언론계의 시각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상대가 막강한 힘이 있는 사실상의 여당이란 점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이 담이 다스리고 있고, 의회 역시 이 담이 장악한 상태 아닌가.

최승철  
천태종보취재부장

수습기자 모집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 활활한 당신!

## 열정이 팔팔 끓어오르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 모집설명회

되고는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망설이고만 있는 여러분을 위해 수습기자 모집 설명회를 갖습니다.

일시 : 9월 3일(화) 오후 6시  
장소 : 동국관 M305

### 모집안내

제출서류 : 지원서 1통(본사 배부 중) 자기소개서 1장  
원서마감 및 면접 : 9월 6일(금) 오후 6시  
장소 : 학생회관 지하 1층 동대신문사

## 동대신문사

## 지면안내

### 8면 정동 다시 보기



얼마전 미대사관이 옛 덕수궁터로 신축 이전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동 지역 탐방을 통해 잊혀진 유래와 역사적 의의를 알아본다.

### 4면 통일축구대회

오는 7일 열리는 남북통일 축구 경기를 미리 살펴본다.

### 5면 이북 학술 동향 - 문학

이북 문학의 변모 과정을 통해 민족문학의 동질성을 찾는다.

### 근로장학생 139명 선발 결원 발생시 수시 모집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이 2학기 근로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번 근로장학생은 △가계곤란 △학업성적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총 139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학생은 4개월 또는 6개월 동안 도서 정리·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보조를 맡게 되며 매달 2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인원변동에 따라 학기 중에도 근로장학생을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연 비대위원장 사퇴 집행부 인력문제 심각

임준순(정의3)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 비대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학술분과장인 백종혁(경영3) 군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한편, 동연은 얼마 전 집행부 2명이 사퇴하면서 총 집행부가 2명으로 동연제 등 행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 여대생 기업연수 참여 실질적인 취업교육 제공

본교가 올해부터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여대생 기업연수'에 참여한다.

여학생실(실장=이혜은·지리교육) 담당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지난 7월에 시작됐으며 행사 참가 학생들은 10개 기업체에서 취업 실무 교육을 받았다.

본교의 경우 서류·면접을 통해 선발된 여학생 10명이 삼성카드 등 10개 기업체에서 각각 연수활동을 수행했으며 현재 대부분 만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취업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 것 보다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개혁추진단 워크숍 내실화·특성화 논의

교육개혁추진단(단장=정용길·정치외교학)이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다량관 2층 세미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내실화연구위원회와 특성화연구위원회가 모두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진행했던 각 분야 교육개혁 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 'K교수 사건' 새로운 국면

## 일본인제자·동료 여교수 명예훼손 고소 당해

사회학과 K교수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일본인 제자 M씨와 현 사회학과장 조은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함에 따라 'K교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K교수는 지난 5월 22일 M씨를 △무고=자신을 형사고발한 사실 △명예훼손=사건을 일본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회학과장과 사회학과 학생회장에게 알린 사실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에 M씨는 지난달 9일 의정부 경찰서에 출두해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으며, 현재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K교수는 지난 6월 12일 현 사회학과장 조은 교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는 제자 성추행 사건을 놓고 교수가 동료 교수를 고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지난 학기 여교수회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거한 발언을 한 사실 등 △업무방해=과학생들이 운영하



한 학생이 강의실 앞에서 K교수 수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는 사이트에 K교수 프로필을 없앨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조은 교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본교 교수들과 여성단체는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대표=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외, 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조은 교수와 M씨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대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 ▶ 관련기사 3면(해설보도)

한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 위원회는 지난주 K교수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 앞에서 개설강의 폐강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박윤지은(영화영상4) 부총여학생회장은 "선전물을 게시할 때마다 매번 손상돼 이번학기 대부분 피켓시위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K교수가 담당할 2과목 중 전공과목은 정원 미달로 폐강됐으며, 교양과목은 정정자(마일리지)까지 33명이 신청한 상태다. 이는 개설가능 인원(40명)에 못미친다. 그러나 지난 학기 수강정정은 일부 과목 폐강 기준이 30명으로 하향 조정돼 개설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대학원 수업은 4과목 중 3과목이 개설됐다.

그러나 2학기째 K교수가 맡은 사회학과 전공과목이 폐강돼 전공수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대학부 dmz@dongguk.edu



### 잘 살아보세 ...

단과대 품종패 연합(회장=김동연·정보관리2, 이하 단품연)은 지난달 30일 학생회관 앞에서 개강굿을 진행했다. 2학기 개강을 축하하는 이번 굿에서 단품연 소속 학생들은 본교 학생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 총대, 오늘(2일)부터 5일간

총대의원회(비대위원장=정석중·수교4)는 오늘부터 5일간 2003학년도 학생회 건설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단과대 학생회 선관위원장=경영대 생자대 정산대

이과대 야간강좌총학생회 각 1명 △중앙 선관위원=재학생 중 10~20명이다. 이와 관련해 총대의원회

임상선(국교4) 사무국장은 "단위 선관위원장의 경우 대의원회의를 통해 선출되고, 대의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단위에 한 해 모집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2학년도 상반기 통상강사 징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공과대·이과대·교지원접위원회는 각각 △공과대·이과대=이의제기 반력 △교지원접위원회=징계유보가 결정됐다.

공과대는 지난학기에 이어 예산정지 무기한 징계를 받게 됐으며, 교원은 9월에 계획된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결과가 재결정 된다.

## 정족수 미달 이사회 무산

### 각종 행사로 불참 ... 신규교수 임용 차질

최근 소집된 두 차례의 동국학원 이사회(이사진=오복원)가 정족수 미달로 연기·중단되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감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소집된 제186차 이사회는 이번 학기 신규교수 임용 등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교수의 과반수) 미달로 무산돼 교수 채용이 개강 후로 미뤄지는 사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는 매년 같은 시기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난달 26일 이사회가 다시 소집돼 신규교수 채용이 확정됐지만, 수련회 등의 일정으로 신규 교수가 담당할 강의 대부분이 휴강되거나 대체강사에 의해 진행됐다. 때문에 신규 교수의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강의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정정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또한 다시 소집된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은 회의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장을 떠나 정족수의 결 정족수(재적 교수의 2/3이상) 미달로 본교 의과·한의과대학 불교병원 임상교원·직원 채용과 관련된 정관 개정 결정을 하지 못했다.

불교병원 관련 정관은 오는 5일 예정된 대한병원협회 실험실습병원 실태조사 전까지 통과해야 하는 사안으로, 실사를 받지 못할 경우 향후 개인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과반수 이상 모여야 성사되는 이사회를 소집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법인사무처에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일을 9일 전에 통보하더라도 13명의 이사 중 9명의 이사는 남은 불교행사 참여나 참선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처장=장운 스텝)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이사들의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장을 비롯한 몇 명의 이사가 소집일을 결정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이사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경제53졸) 총동창회장은 진승현 로비사건과 연루돼 구속된 후 4개월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자격을 유지, 5월부터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학교 행정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최종의사결정기구이다. 학사행정의 대부분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상황에서 이사들의 무성의한 태도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가로막는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사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사직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관련기사 3면(해설보도)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 회전무대

### 개강특명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강의시간표에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데.

알아보니 지난 학기의 경우 개강 전 영어강의 신청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교수의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는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수강신청 기간 내 불필요한 강좌이동을 부추기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개강특명! 시간표에 표시되지 않은 강의의 정보를 찾아라."

### 네(?) 몇대로 해라

○...일부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달라져 버린 강의시간표 때문에 혼란스러워 했다는데.

알아보니 수강신청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과목은 시간표에서 없어지고, 학과·교수 사정으로 담당교수가 변경된 과목인 경우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해 마음을 풀 수 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에 한 학생 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시간표 변모와 과목의 행방불명."

### 자율과 방종

○...학내 새로운 휴게실이 생겨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몇 명 학생들이 빈 강의실에 들어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담다는 이유로 큰 강의실에 한두 명이 들어가 에어컨을 켜놓는 것은 전력낭비가 아닐는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강의의 여운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다. 후~욱."

### 새치기

○...학생회관 앞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려 오는 장애인들이 허탕치기 일쑤라는데. 알아보니 주차구역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 차를 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이동 편의를 위해 학관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몇몇 운전자들이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그들의 주차 권리, 오토바이와 함께 사라지다(!)"

##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전통사찰음식을 통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제5기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강사 : 선재스님 (본교 가정교육과 겸임교수)
- ▶ 교육일시 : 9월 11일 ~ 11월 20일(10회)  
매주 수요일 10시 ~ 12시 30분
- ▶ 수강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 ▶ 접수 : 9월 2일(월) ~ 5일(목)
- ▶ 대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 ▶ 문의 : 여학생실(2260-3056)



예전부터 동국대에 입학했으니 전통사찰음식강좌를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강좌더군요. 불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마다 교훈받음도 듣고 생활의 지혜를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4기 수강생 소감 -



서울캠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 사회봉사 단원 모집

1. 신청자격 : 재학생
2. 신청기간 : 2002. 9. 2(월) ~ 9. 4(수) 3일간
3. 봉사활동 기간 : 2002. 9. 9(월) ~ 2002. 11. 23(토)
4. 봉사활동 방법 : 봉사활동 기관 활동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활동안내자료 :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비치
5. 봉사활동대상기관 :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외 약 120여개 기관 (활동내용 : 650여개 프로그램)
6. 봉사활동 신청 장소 : 동국참사람봉사단 (본관 3층 학생복지실 내 ☎ 2260-3049)
7. 예비교육  
가. 일시 : 2002. 9. 7(토) 08:20~17:00  
나. 장소 : ▶ 특강 - 본교 중강당 08:20까지 시간연수  
▶ 현장체험학습 - 한사랑 마을 · 향림원 (경기도 광주 소재)  
※ 현장체험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은 봉사활동 실시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회 이상만 이수하면 됨.

- 사회봉사 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는 추후 공지할 예정
- 최근 상담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

# 이사회, 학교 운영·발전의 중추적 기능

## 교육행정 전문성과 책임성 갖춘 논의체로 거듭나야

### ■ 동국학원 이사회의 위상과 역할

신규교원 임용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한 주 늦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수강신청 정정을 포함한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처럼 재단 이사회는 주요 학교 행정운영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성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본교는 조계종 종립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전체 13인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조계종 재직 승려로 선출된다. 스님 이사의 경우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학답)에서 복수추천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9명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총장, 총동문회 2인, 불교계 인사 1인으로 구성된다.

이사들의 재임기간은 4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사스님의 경우 대다수가 현직 이사가 차기 이사후보로 복수추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재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현재 이사스님 대부분은 8년 이상 동국학원 이사로 재직중이다. 이는 재직기간 동안의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해 재임되는 방식이 아니라서

이사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교가 종립학교라는 특성을 장점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애착을 지닌 스님이사들의 선출이 절실하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크게 법인, 소속 학교와 관련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결산 등 재산관리 △정관변경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 관련 △수익사업 △기타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재단은 학교발전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수익사업을 벌이기도 하는데, 현재 동국학원의 경우 전자계산원, LA동국로알병원, 각종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속병원전입금을 제외한 재단전입금이 예산의 2%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단의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학교발전에서 재단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국학원 이사회의 경우 종관위에서 과전된 만큼 종단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재

단은 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재단은 적극적으로 나서 종단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재단과 종단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학교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 사설

## ‘어이없는’ 영등위 판정

지난달 27일 열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김수용, 이하 영등위)의 재심에서 ‘죽어도 좋아’가 또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영등위의 판정은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전무하다는 점과 영화의 전반적 내용을 무시한 채 내려진 기계적 판정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제한상영가 분류가 지난해 12월 실질적 사전검열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던 등급분류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의 퇴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등위는 이와 관련한 보도문에서 “전체적인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7분간의 정사장면은 지금까지의 등급분류기준의 객관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장면을 허용하게 되면 포르노물의 심의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것을 우려한 처사다. 향후 심의될 다른 영화들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르는 문제를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영등위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영등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한다는 민간 심의기구’를 자임하면서도 심의의 편의성을 위해 영화의 다양성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등위의 판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는 커녕 갈수록 다양해지는 영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영화인회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등 9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의위원 3인이 탈퇴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다. 얼마전 분사 주최 상영회에 참여한 213명 중 18세이상 관람가에 무리가 없다는 답을 한 사람이 84%에 이른다는 설문결과 역시 영등위의 판정이 관객의 선택 폭을 신장시키려는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영등위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검열기관이었던 공연물윤리위원회에서 97년 공연예술진흥협회를 거쳐 99년 국민의 기대를 업고 민간주도의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발족된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현재 영등위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검열기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영등위는 지금이라도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를 철회하고 영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 역고소 대책위 장시기 교수 인터뷰

## “학과장 활동이 고소근거 될 수 없어”

### K교수의 명예훼손 고소 ... 여성단체와 연계 활동 벌일 것



K교수가 사회학과장 조은 교수와 일본인 제자 M씨를 고소한 것을 계기로 본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이에 대책위 간사 장시기(영어영문학) 교수를 만나 K교수의 역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대책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 K교수가 조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이를 계기로 여성단체에서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이에 동료교수들 사이에서 우리학교 차원의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강정구·김태준 교수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

- 이번 역고소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조은 교수가 사회학과장으로서 진행했던 공적 업무가 명예훼손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M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K교수와 당사자끼리 사건을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것은 학과장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K교수가 공적인 차원의 활동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

- K교수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법적 혐의여부를 떠나 제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오히려 동료 교수와 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본다. 이번 역고소 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든 K교수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역고소 사건 처리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조은 교수의 경우 공적 업무를 고소 근거를 삼은 데다가 그 중 일부는 몇몇 여교수들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대책위에서는 결과는 지켜보되 처리과정에서 M씨와 조은 교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성계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모금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 역고소 ‘효과’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여성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은 빈번하다. 얼마전 제주 우근민 지사의 성추행사실을 공개해 고소당했던 제주여성민우회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조은 교수의 명예훼손 고소는 이러한 흐름이 대학사회 내부에 반영된 첫 번째 사례로, 동료교수를 ‘역고소’ 한 것은 드문 일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조은 교수 ‘역고소’ 사건을 계기로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역고소의 파급효과는 상당한 편이다. 대책위 서하나 간사는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성폭력 사건 공론화를 위해 나서는 이들이 극히 소수인데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씌워진다면 공론화가 필수적인 성폭력사건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 역고소 혐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공공의 이익’이다. 따라서 본교 조은 교수 또한 고소근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유현우, 부주장 장영길,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7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8-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약론

말짱 도루묵



“여기에도 냉난방기가 생겼네.”
“그런데 이게 뭐야. 작동이 안되잖아!”

경주캠 징혼관 한 강의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새로 들어온 냉난방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보지만, 냉난방기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지난 학기 학교측은 학생복지를 위해 방학 동안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노천강당을 보수 공사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학생들은 복지시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새학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공사는 두 달간의 긴 방학동안에 모두 마무리되지 못하고 개강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사에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학교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그 과정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은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이런 불만은 이번에 새로 완공된 노천강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행사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을 텐데...”

수업을 받기 위해 자연과학관 오르막길을 오르는 한 학생이 노천강당을 보고 우려를 표한다. 녹야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도서관과 원호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학교측은 노천강당을 보수하고 사용을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연과학관에서 소음을 견디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이것이 과연 학생복지를 위한 공사인지 의아해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학교측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신경을 썼다면 불만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을 것이다.

시설공사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구성원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남북 축구로 여는 ‘통일 코리아’

오는 7일 통일 축구대회 열려 ... 체육교류 획기적 계기 될듯



90년 남북 통일 축구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 운동장을 돌고 있다.

관중석을 가득 덮은 대형 단일기와 ‘오! 통일 코리아’ ‘통일 한국’을 외치는 관중들. 어깨 동무를 한 채 관중과 함께 어울려 아리랑을 부르는 남북 축구 선수들.

머지않아 이같은 장면은 실제로 보게 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오후 7시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는 남북 축구 대표팀이 맞붙는 ‘2002 남북 통일축구경기’가 열린다. 시드니올림픽 이후 2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 체육교류가 이번 통일축구경기를 통해 다시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분단 속 싹튼 축구 교류

분단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체육 교류, 특히 축구 교류는 다른 분야보다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난 90년에는 분단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의 효시로 꼽히는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개최돼 평양과 서울에서 두 차례 경기가 열렸다. 또한 이듬해인 91년에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교류는 남북관계가 불안정할 때에도 한반도의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남북 통일축구 역시 단순한 체육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라운드와 관중석에서 서로 몸을 부딪치며 남과 북이 한 핏줄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 아시안 게임, 8차 장관급 회담 등 굵직한 남북관계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 요즘 남북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경기하게 될 북측 축구 대표팀의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 북측 대표팀은 93년 미국 월드컵 지역예선 이후 국제무대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2000년 4월 아시안컵 지역예선을 계기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 후 과감한 세대교체와 해외전지훈련을 통해 전력보강에 힘을 기울여 지난해 열린 중국 삼삼대 4개국 대회와 올해 2월 대국 킹스컵 대회를 연속으로 석권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전력상승을 이룬

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택기 기자는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최근 보여준 성장 속도를 감안한다면 오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아시아권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팀이 상승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회에서는 남측의 우세가 점쳐진다. 국제 축구연맹이 발표한 순위만 보더라도 22위인 남측이 126위인 북측에 크게 앞서 있다. 북측이 국제경기에 자주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팀 간 경기가 반영되는 피파랭킹 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은 2002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달성한 남측에 비해 한 수 아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2006년 월드컵 단일팀을 향해

남북 관계가 잘 풀려 오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남북 대표팀이 단일팀을 구성한다면 북측 대표팀 중 어떤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게 될까? 우선 미드필더 김영준(19)을 꼽을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불우하고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 킹스컵 경기를 지켜본 축구 관계자들로부터 “수비는 물론 공격기회를 만들어내는 중시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비진에서는 ‘북한의 홍명보’라 불릴만한 리만철(24)과 대인방어가 뛰어난 리대성(20)이 지난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의 ‘스리백’이었던 30대 노장 트로이카 홍명보, 김태영, 최진철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 꼽힌다. 공격진에서는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 윙백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전철(20)과 킹스컵 9골을 몰아넣은 리규철(22)이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대학가 응원 열기 통일로 골인!

‘남북통일축구대회’를 맞이해 각 대학과 시민단체마다 응원준비가 한창이다.

본교 총학생회(회장=주진완, 국어교육4)는 지난 6월의 열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만해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한편, 한반도기를 나눠주면서 대회의 의미를 전 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이번 대회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만큼 모두 하나가 돼 응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학생과 시민들의 큰 호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희대는 행사 전날 ‘교내 통일포살대회’를 개최한다. 4명이 한 팀을 이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우승

하면 경기장 입장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 팀들은 벌써부터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 등의 각 대학들도 학내 광장이나 노천극장에서 시민들과 경기를 보며 함께 응원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가를 벗어나면 통일연대의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통일연대 소속 500여명의 응원단은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붉은악마와 함께 대형 한반도기를 흔들 계획이다. 또한 다른 통일연대 회원들도 덕수궁과 대학로 일대에서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통일한국’을 외치며 월드컵 신화가 통일 신화로 이어지는데 힘을 예정이다.

〈인〉

qwertewq@dongguk.edu



분신 자살을 기도했던 박봉규 씨의 노점.

길거리의 새로 남은 어느 노점 상인의 삶

한 남자가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어느 사무실로 뛰어들어간다. 이미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그가 들어간 곳은 중구청장실. 정부를 향한 분노의 마지막 표현방법이었다.

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23일,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던 박봉규(61) 씨는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방식에 분노를 느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분신자살을 선택한 것일까.

“그 일로 분신자살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알았으면 말했지.” 평소 박봉규 씨와 어울려 지내던 노점·점포상인들이 그의 리어카 앞에 모여 23일 노점상 단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를 전 문건을 빼앗겼던 박봉규 씨가 울분을 터뜨리며 단속차량 밑으로 들어가 끝까지 매달렸고, 이에 주변상인들까지 가세해 20여 명의 단속원들에 맞섰다는 이야기였다.

“한 번 빼앗긴 물건을 다시 찾으려면 하루 장사치고 약 7만원 가까이 내야 해요. 안 그래도 장에자인 처남, 투병중인 아내 때문에 집안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더욱 답답했죠.”

박 씨처럼 공구 노점상을 하는 김세기(43) 씨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노점상인들이 버는 돈은 한달 꼬박 채워도 10만원 안팎. 박봉규 씨와 같이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로서는 윤 나쁘면 한 달에 몇 번씩 걸리는 단속이 아수룩했었다.

서울시와 중구청이 노점상 집중단속을 벌이는 이유는 주로 보행권 때문이다. 중구청은 보행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청계천을 꼽는다. 각 노점과 점포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많은데다가 그 사이로 자전거, 손수레 등이 지나가니 때문에 인도를 걷는 시민들이 다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을 계속해도 노점상들은 여전하다”는 구청직원들의 불만처럼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으로 보행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달리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없는 이들은 아무리 강력한 단속이 있을지라도 노점상을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점상 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은 그들이 생계를 이어나가 힘든 도시민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달리 배운 것이 없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자식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죠.” 노점상인 임 모(66) 씨의 꿈은 대학을 나온 자녀들이 회사에 취직해 떼떽하게 사는 것이다. 불법 노점상이었던 자신의 삶을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노점상인들에게는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노력까지 결국 단속대상이었던 셈이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결국 불법적인 일밖에 할 수 없나봐요” 어느 노점상인의 자조 섞인 한마디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당기던 박봉규씨의 절망을 느끼지는 것은 애 일까. 박 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무렵, 청계천 3가 거리에는 또 다른 ‘그’들이 여전히 노점을 지키고 있었다.

송운경 기자

itsU@dongguk.edu

2002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서인범 (문과대학 사학과 전임강사)

- 본교 사학 줄
○ 본교 사학 석사학위 취득
○ 동북대 동양사학 석사학위 취득
○ 동북대 동양사학 박사학위 취득
○ 동양근세사 전공



김선웅 (이과대학 통계학과 전임강사)

- 본교 통계학 줄
○ 본교 통계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통계학 박사학위 취득
○ 전 Michigan 주립대 Post-Doc.
○ 응용통계학 전공



박명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 본교 정치외교학 줄
○ 본교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 Wisconsin-Milwaukee대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 Michigan 주립대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Michigan 주립대 강사
○ 비교정치론 전공



이광근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식품공학 줄
○ 서울대 식품공학 석사학위 취득
○ California대 식품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California대 Post-Doc.
○ 식품화학 전공



안양규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종교학 줄
○ 본교 불교학 줄
○ 본교 초기불교학 석사학위 취득
○ Oxford대 초기불교학 박사 학위 취득
○ 초기불교학 전공



이희욱 (불교문화대학 미술학과 전임강사)

- 본교 조소학 줄
○ 본교 미술교육 석사학위 취득
○ 전 동국대 겸임교수
○ 불교조각 전공



오창인 (불교문화대학 미술학과 전임강사)

- 계명대 시각디자인 줄
○ 계명대 시각디자인 석사학위 취득
○ 전 도입 경도대학 조교수
○ 시각디자인 전공



조은곤 (상경대학 경영학과 전임강사)

- 연세대 경영학 줄
○ 연세대 마케팅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 국제경영 박사학위 취득
○ 전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 국제경영학 전공



강준훈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 경북대 의학 줄
○ 전 대구 제일인공병원 부원장
○ 인과전공



황지영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가톨릭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부산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문화병원 과장
○ 신부인과 전공



이선주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동국대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소아과 전공



이재경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전 동국대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방사선과 전공



신혜경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동국대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성형외과 전공



이영실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동국대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내과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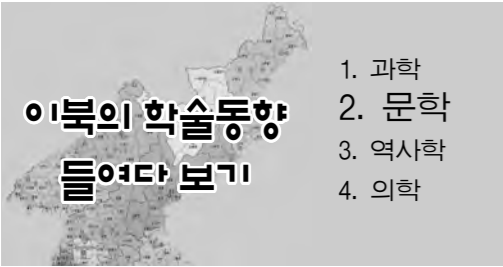
김남일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동국대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내과 전공



하린익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서울대 의학 줄
○ 서울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삼성서울병원 2·3과 병원장
○ 전 성곡관대 외과 교수



# 연구 · 창작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 물결

이북의 문학이 번모해온 과정은 대개 네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평화적 조국건설기(1945~1950), 둘째 조국해방전쟁기(1950~1953), 셋째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기(1953~1960), 넷째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기(1960년대 이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방면에서 그 본질적인 속성을 염두에 둘 경우, 이북의 문학은 1960년대 중반을 분수령으로 하여 그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 중반 이전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문학적 실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1960년대 중반을 넘어면서부터는 주체의 문예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방화의 추세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 사회주의 문학 건설

이북의 문학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문학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이북 사회의 체제 확립과 그 이념적 정비를 위해 당의 정책에 따라 조직 동원되었고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문학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당의 문예정책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을 계몽하

## 민족문학의 동질성 회복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가능성 찾아야

고 선전하면서 당과 인민의 문학이 되고자 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시 작품으로는 조기천의 장시 '백두산', 강승환의 장시 '한라산', 민병균의 '어러리발', 조벽암의 '삼각산이 보인다' 등이 있으며, 소설의 경우 황건의 '개마고원', 윤세종의 '시련 속에서',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 이기영의 '두만강', 최명익의 '서산대사' 등이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회주의 문학운동은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내세워지면서 문학건설의 기본 방향도 첫째 주체적인 문학의 건설, 둘째 노동 계급적 문학의 건설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사상 문학의 침투를 막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 위업에 힘있게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다.

사회주의적 문학의 성격과 입무, 그 발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문학에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형상화하는 요건들로 채워져 있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집체적으로 이

지난 8.15 민족공동행사에서 남북이 함께 학술토론회를 여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의 학술교류가 극히 드물게 이뤄졌던 것으로 볼 때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남북 정보기술(IT)의 협력이 강조되고 그 분야의 교류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동 학술 행사는 이후 남북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북의 학술 동향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본사 학술부에서는 이북의 학술 동향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 학술교류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 대중적 취향에 접근

투어진 이른바 항일혁명문학의 대표작인 '꽃 피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의 운명' 등이 나왔고, 김일성의 생애를 소설화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하여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과 홍석중의 '눈새 바람', 석운기의 '시대의 탄생' 등이 나왔다.

## 대중적 취향에 접근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북의 문학은 주체의 문예 이론이 요구했던 이념적 성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는 먼저 문학 연구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북의 근대문학사 연구자들에 의해 반동적 부르주아 작가로 비판받았던 이광수, 현진건, 이효석, 채만식 등의 문학에 대한 재평가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진보적인 성격이 새로이 조명되었으며 시인 김소월, 한용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김일성의 항일 혁명 투쟁에 가려졌던 일본 식민지 시대의 계급문학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문학 연구 영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의 물결은 문학 창작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단적 이념을 중시하며 혁명 위업에 대한 찬양에 주력했던 이북의 시단에 서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소설의 경우에도 집체 창작을 중심으로 혁명적 대작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대중적 취향에 접근하여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도 소설 속에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북 사회의 개방화 시대를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 내부의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북 문학은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그 형식과 내용, 이념과 가치 등에서 이념의 문학과 상당한 격차를 보여 왔다. 이같은 차이는 모두 정치 체제와 이념의 요구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학의 교류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앞으로 가시화될 남북 문학교류는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류정책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민족문학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권영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북의 대표적 문학 작품들. 80년대 이후 이북의 문학은 개방화 시대를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 내부의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자유로운 정보 공유 VS 저작자의 권리 존중

## 불법 복제 방지장치 마련이 바람직 ... 도서관의 기본적 역할 침해 말아야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이는 도서관을 정의하는, 곧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도서관이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오히려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은 소장된 자료를 디지털화 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프로그램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디지털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저작권법'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보의 무단 복제·조작·변경 가능성을 염려한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에 의하면 디지털화 된 정보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서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자료나 아닌 인쇄물로만,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불된 상태에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8일 열린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보공유연대의 정경희 씨는 "디지털 자료를 단순히 열람하는 것은 일반도서관에서 대출하는 것과 같다"며 "정보 열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 정보를 복제·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디지털화 하고 있는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학위논문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들이 대부분인 점을 강조하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법이 정보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 평화마을 PeaceNet 전용회 사무처장은 "디지털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유통이 보장돼야 하며 그에 따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연구실장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노동에 대한 가치이므로 그 배타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또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혹은 보상이나 대가없이 열람,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디지털 도서관에서 정보 공유와 저작권법의 대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리바다 논쟁처럼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서관은 정보의 공적 접근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적인 사회 공간이라는 점에서 소리바다와는 다른 맥락이

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보이용자가 '해적'이 아닌 이상 '저니친'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정보 접근 기회를 박탈하고, 도서관 본래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참여자들이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학술단신

###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 한국교수불자대회

####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불교적 해법 제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연기영·법학)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설악산 백담사에서 '2002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민족화합, 정치·경제·사회, 과학기술, 환경, 문화, 예술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28명이 발표했다.

학술발표 전 분교 정치의교학과 백경남 교수가

'불교적 정치인상'을 주제로, 정천구 영산대 국제학부 교수가 '불교인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분교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공학에 대해 불교 교리에 입각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불교적 견지에서 볼 때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바로 자연의 섭리"라며 "다만 생명공학이 인간의 욕심에 영합할 경우 죄악이 될 것"이라고 무분별한 실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각 분과의 발표를 통해 현대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분교 통계연구소 설립

지난 7월, 분교에 통계연구소(소장=염준근·통계학)가 설립돼 올바른 통계 모형 및 기법에 대한 연구공간이 마련됐다.

통계연구소는 △정기적 연구발표회 개최, 정무기관과의 통계 연구와 교류 등을 담당하는 이론 및 응용연구부 △의부 수탁 연구과제 추진, 통계 조사 및 분석 방법 연구와 상담 등을 담당하는 조사 및 상담부 △통계 워크샵 실시, 통계 자료분석 및 통계 패키지 특강 개최 등을 담당하는 교육부로 구성, 활발한 연구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 21세기 지식인 사전

### 의학박사 장기려(1911~1995)

임원비, 수술비를 내지 못하던 환자를 아무도 몰래 도망가게 했던 일화로 유명한 의사. 돈없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하느라 늘 가난했던 의사.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그는 바로 성산 장기려 박사다.

191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그는 32년 경성의 학전대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의과대학 외과교수, 평안도립병원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를 지냈다.

50년에는 6.25전쟁으로 인한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북에 아내와 5남매를 남겨둔 채 차만만을 데리고 월남해 부산에 무료의원인 복음병원을 세웠다.

이후 서울대 부산대 가톨릭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한 장기려 박사는 59년, 국내 최초로 간 대량절제술에 성공하는 등 간암에 대한 연구로 대한 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며 학술적으로도 큰 기여를 한다.

또한 68년에는 영세민들의 질병치료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최초의 민간주도 의료보험조합인 청심자회를 만들고, 75년에는 의료보험조합 직영인 청심자 병원을 열었다.

은퇴한 뒤에도 청심자 병원에서 진료하는 등 여러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한 장기려 박사는 95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평생 자기 희생적인 삶을 실천했다.



## 다양성 대표하는 가사문학

우리는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진 세계에서 몇 안되는 우수한 민족이다. 우리는 2천여 년의 문학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우수한 문화민족이다.

그러나 참나라 비평가 김성탄은 조선은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세계적인 인물을 단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민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언제 공자나 맹자를 배출한 일이 있느냐는 것이다. 문화 아류의식이나 문화 식민지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그들만의 독창성 발휘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항상 따르기와 흉내내기가 가치지향적이고 독창성은 역가치의 산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일등국민, 일등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류의식과 식민지의식을 청산해야 한다. 이점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모두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한국문학은 입으로 전하는 구비문화와 글로 쓴 기록문학이 있다. 글로 쓴 문학은 한글로 쓴 문학, 한자를 빌려 쓴 문학, 한자로 쓴 문학 세 갈래가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천대를 받은 문학이 어떤 연재에서 다루려고 하는 한글로 쓴 가사문학이다.

가사문학이 유난히 평가절하와 천대를 받게 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한글로 쓰여 졌다는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지은이가 스님, 선비, 군인, 여성, 서민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온 국민이라는 점이다. 앞은 외래문자인 한자가 고급문자이고 고유문자인 한글은 저급문자라는 아류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며, 뒤는 온 국민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학이라면 좋은 문학작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선민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다.

아류의식이나 선민의식이라는 이데올로기로는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 스님이나 속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선비나 서민은 모두 나름대로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들의 공통적이거나 차별화 된 생각하기, 곧 사상이 있기 마련이다. 존재가치를 부정하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낼 수 없다. 먼저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고전문학 유산은 그 역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 전해지고 있다.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고전 문학은 상고가요 3편 내외, 향가 25편 내외, 고려가요 30여 편 내외, 소설 800여 편 내외, 시조 4천500여 편 내외 정도이다. 그러나 가사작품이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번에 분교 한국문학연구소가 지난 30여 년 간 필자가 수집하여온 자료들을 포함하여 그 동안 학계가 발굴해 온 작품목록을 꾸며본 결과 이분을 포함하여 6천200여 작품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보고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현재까지 얻어낸 확실한 결론의 하나는 한국의 고전문학 유산 가운데서 그 양과 작자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은 가사문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스님집단, 선비집단, 여성집단, 서민집단의 가사작품 이야기를 전개하여 보려고 한다.

소나기

인사청문회, 당신의 비리를 보여주세요!



△될 하는 건지... '오십백 백보인' 인간들이 복치고 장구치는 세상. 아~ 열받는다. △비리! 정치인만 있는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청문회 한 번씩 다 해봤으면... △의원님들,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해지셨나요? 질문할 때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그놈이 그놈이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시시콜콜한 정치적 범소주의 이외에는 없는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격이군. △까마귀 노는 곳에 파면 백로가 어울릴까? △정치비리자들, 정 안 되면 사회봉사라도... △들어내자 몰아내자 총리서리 들어내자. △대선후보 이회홍 비리나 밝혀라. △비리가 하도 많아서 어지간한 비리는 비리같지도 않다. △비리가 문제냐? 사사건건 쟁판 놓는 한나라당이 문제지. △비리, 비리 하나까 너무 비리다. △청문회 할 때마다 부결되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대부분이 전과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 그들 눈에도 총리는 깨끗해야 하는지... △총리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부터 썩 같아 치우자. △국회의원들 중에 뭐가 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흙탕물 속에 섞은 국회의원들... 그 속에 총리만 깨끗해야 하나. △과연 이 나라가 어찌 될는지. △장상, 장대환... 다음은 누가 될까? △히딩크를 총리로. △정치, 난 이 순간에도 정적을 외친다. △세상 어느 곳에나 비리는 살아 숨쉬다. △정치, 그 뒤에서 우리는 사바사바한다. △까마귀 노는 곳에 까마귀가 가는데 누가 뭐라 하는가.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우리 사회의 이중 잣대.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놀랐다. 언제부터 국회의원들이 그리 깨끗하셨나?

16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남짓 남았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당과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운 정책대결이 아니라 병역비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른바 '병풍'이다.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 수라고 하는 수의 우위와 조·중·홍 등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족벌연론의 지원을 받아 선거국면을 이양한 방향으로 끌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신당 창당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드러났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간판으로는 대선에서의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호남지역당의 명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신당 창당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비이성적이다. 공식적으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치러냈다. 경선에는 200만명의 국민이 참여를 희망했고 그 가운데 7만여 명이 경선에 참여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그 경선에 참출되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에게 물러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물러나야 한다는 근거는 노 후보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보다 낮다는 것 밖에 없다. 지지율이 낮아서 물러나야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사퇴해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는 엄청 낮기 때문이다.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되 지지율이 떨어진다든 것만으로 물러나라는 주장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모두 노무현 후보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최근에 정몽준 의원이 월드컵 4강 신화에 힘입어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아직은 거품이 많고, 또 정몽준 의원은 민주당 신당 창당에 가세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은 경선이 끝난 뒤 민주당이 노무현 후보 선출에 나타난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



논단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성공회대 교수

‘노무현 죽이기’

보에게 물러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물러나야 한다는 근거는 노 후보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보다 낮다는 것 밖에 없다. 지지율이 낮아서 물러나야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사퇴해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는 엄청 낮기 때문이다.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되 지지율이 떨어진다든 것만으로 물러나라는 주장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모두 노무현 후보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최근에 정몽준 의원이 월드컵 4강 신화에 힘입어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아직은 거품이 많고, 또 정몽준 의원은 민주당 신당 창당에 가세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은 경선이 끝난 뒤 민주당이 노무현 후보 선출에 나타난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

장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모두 노무현 후보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최근에 정몽준 의원이 월드컵 4강 신화에 힘입어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아직은 거품이 많고, 또 정몽준 의원은 민주당 신당 창당에 가세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은 경선이 끝난 뒤 민주당이 노무현 후보 선출에 나타난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열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련 강화, 기간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에 다녀왔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0월에 국가 권력에 의해 의문사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9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없어서 작년과 올해 두 차례 결친 법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제 연장된 시한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접수한 83건의 사건 중 24건만이 조사가 종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원혼들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실어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유가족들도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한 개인에 대한 명예 회복뿐 아니라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의문사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조사시한이 끝나기 전에 특별법을 개정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시한을 연장하여 반드시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평화가 좋은 것은 자식이 부모를 묻을 수 있음에 있다"라는 발제자의 말이 귓전을 울린다. 이종관 (사범대 역교)

우리 문화에 관심 가져야

나는 문화유적 관련 카페를 통해 신라 천년의 도시 경주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모든 문화유적 답사관련 단체들이 서울이나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주를 중심으로 한 답사회를 만든 것이다. 우선 답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모임이며 초등학교생부터 주부나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해 문화유적을 설명과 함께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답사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설명이, 답사 후에는 답사지에서의 추가 정보를 편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답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기관에 제보하기도 한다. 현재 경주만 해도 3년 이상 다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매번 답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문화재들이 너무나 허술한 관리로 훼손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담은 사이트나 책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문화·유적 바로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현대 (경주캠 신라문화연구소 조교)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짜왓디 캅"

지난 여름방학 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해외봉사활동 제6기 팀원으로 태국을 다녀왔다. 우리 태국팀은 컴퓨터, 유아, 사물놀이, 태권도, 이발봉사, 벽화 등으로 활동은 세분화하여 매슈웨이 지역의 세컨더리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을 상대로 사물놀이, 태권도를 선보이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3주 동안 생활하며 빗물을 받아 식수로 이용하기, 밤이면 모기랑 싸우기, 새벽엔 바로 머리 앞에서 우는 닭들 때문에 잠을 설치 일, 알아보지 못하는 태국 문자를 써 내 손에 쥐어 주던 아이들... 수많은 추억들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무엇보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태국 사람들과의 인사이름이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며 두손을 모아 합장하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만나면 공손하게 "짜왓디 캅"이라 하는 것이다. 급하게 지나치며 "안녕하세요"를 외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합장 예우해 주는 모습이 진정 아름다워 보였다. 비록 한국 땅이지만 한 번 외쳐 본다. "짜왓디 캅" 김진형 (인문대 사복4)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8.15 행사 심층성 돋보여 지난호 동대신문에서는 방학중에 진행된 여러 학내사업들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 8.15와 관련된 통일행사에 대한 심층보도 등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불교병원에 대한 1면 TOP 기사는 1학기 때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총장선출 문제나 얼마 전에 있었던 '죽어도 좋아'의 영화상영에 대해서 다른 기사 역시 시의 적절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특히 2면에 걸친 민족통일대회 기사는 심층도와 분석에 있어 시각적, 내용적으로 만족할 만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방중 외부행사 관련 기사가 많아 대학생들이 참여해 활동한 다른 일들에 대한 보도가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느껴진다. 그 밖에도 학내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많은 부분 다루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송희문 (사과대 사회4)

지역적 내용 치중 아쉬워

개강 후 변화된 모습을 알기 위해 저절로 동대신문에 손이 갔다. 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대폭 늘어난 경주 관련 기사였다. 지난 학기에는 종합편과 보도편을 제외하고 서울 위주 기사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읽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었다. 우선 서울캠과 분리제작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경주캠만의 독자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여겨지는 때문이다. 앞으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성덕환 - pybumbuk@hanmail.net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김치! 생일 축하해. -kky △단풍연 14.15기 새 집행부 여러분 축하해요. -걸어다니는 교양 △민정아, 생일 축하한다. -정화 △민현 후배 생일 축하합니다. 부디 만수무강 하시길... -룡 △형석아, 지원아!! 300일 축하한다. △두카 동아리 진흥, 상민, 윤희, 병석이 생일이 모두 9월이네요. 제 친구들 많이 축하해주세요. △추모제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정이 누

열심히 합니다 △2학기 때는 사과대 집행부들 정말 열심히 살거라고 합니다. -영도 △경영대 과장님들, 2학기도 파이팅입니다. -수배자 △뽀! 개강했으니 열심히 하자고~ -hyunggd △五人會 여러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왜 15주 수업인지 꼭 밝혀주세요. △나는 AND인데 모두들 END라 하네. △재완이, 정이 군입대 하거든요.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 △누릉지! 너 너무 귀여워!!

우리의 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기엽아, 방학때 열심히 일하고 운동한다고 힘들었지? 메달 딴 거 축하하고 너무 수고했어. -J △양우형~공인중개사 시험공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혼자 단체 건물 다 뛰어(?) 걸어 다닌 가알~ 수고했다. △새벽 차 타는 언니야, 고생 많다.

열심히 합니다 △광희형 공부 좀 하자? △익종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하자. 나는 놀지 모른다. -Room mate △진홍이 대장님 기사 공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신약부 일동 △동국연구원, 복학하신 선배님들과 나머지 선배님들 파이팅! -후배 △아미, 수연, 수현... 색다른 출발, 열심히 하자구나. △편입을 위해 새 삶을 출발하는 사람들 모두 힘냅시다. 그리고... △지갑을 찾습니다. 사체과 99학번(정희권). 컴퓨터실에서 잃어 버렸습니다. 학생증이라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6-257-4163) △자기가야~ 인상 쓰지마... 그리고 나 이해해. △담배~ 너 나의 남편, 아내, 애인. 너로 인해 난 죽어간다. -애연가

Table with 5 columns: 서울캠, 월(9/2), 화(9/3), 수(9/4), 목(9/5), 금(9/6). Rows include Dongguk University (동국관), Student Council (상록원), and Faculty (교직원) with their respective activities and dates.

Table with 5 columns: 경주캠, 월(9/2), 화(9/3), 수(9/4), 목(9/5), 금(9/6). Rows include Student Council (학생회관) with their respective activities and dates.



# “너무 조용하다,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출을 맡은 유창수(34) 씨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기억하고 보듬겠는가”라고 기획의도를 전한다.

막이 오르면 광복이 되어 고향에 돌아갈 기대로 부풀어 있는 세 명의 여성이 보인다. 순이, 금주, 봉기. 꽃다운 나이에 남의 나라에 끌려와 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이들의 이름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희망적이지 않다.

고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막이 내릴 즈음 객석은 실재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의 훌쩍임으로 숙연해졌다. 나눔의 집에서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온 강일출(74) 할머니는 “당시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괴롭고 비참했다”며 “연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한 월드컵 이후 양국 간 서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교류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 위안부 그린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역사 청산 필요성 고조시키는 계기 마련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 ‘장한가’에는 ‘비익조’라는 새가 나온다. 이 새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날개와 한쪽 눈만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반쪽을 만나야만 비로소 온전한 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짝을 찾지 못한 비익조는 한 번 날아보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짝을 찾지 못한 비익조처럼 한쪽 날개만으로 힘겹게 날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극단 한강이 지난달 31일까지 대학로 소극장 ‘오늘한강마녀’에서 공연한 연극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극단 한강이 광복 57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연극은 일본군 위안부였던 세 여성의 귀향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순이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하지만 과거는 이마의 상처나 빨래의 얼룩과도 같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지난 3년을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꾸미려 하지만,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을 지켜보야 했던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봉기는 병든 몸과 마음으로 고향에 가져갈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중국군인을 받는다.

이들이 맞이한 광복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지워 버리고 감춰야 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고통과 갈등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고뇌 속에서 결국 순이는 자살을 선택하고, 봉기는 그곳에 남고, 금주 한 사람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른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간 금주에게 무엇이 기다리

하지만 아직도 매주 수요일이 되면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열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이들은 온전한 양 날개로 날 수 없는 비익조일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에 앞서 해묵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반쪽 날개로 고향에 돌아온 이 땅의 딸들. 이제是我们이 이들의 나머지 반쪽 날개가 되어야 할 때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문화 VS 문화

# 전하는 음악과 즐기는 음악, 결국 하나!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사회·정치적 주제의식을 문화로 통해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취향과 기호에 따른 문화를 즐기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이에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학내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국대에는 공통본모 안에서 같고 또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 ① 아리랑 VS 피어리스 던
- ② 탈 VS 극예술연구회
- ③ 울동패 VS A-JAX

학내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음악 관련 동아리들이 있다. 그 중 민중가요 동아리 ‘아리랑’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이화(정외2) 양과 락 동아리 ‘피어리스 던’의 위성인(미술2) 군을 만나 서로에 대한 생각과 평소 궁금한 것에 대해 들어보았다.

기자 = 서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없을까요.

위성인(이하 위) = 항상 궁금했는데 아리랑은 학생운동 성향이 짙은 노래만 부르나요?

한이화(이하 한) = 민중가요 노래패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투쟁가’만 부르는 건 아니에요. 90년대 들어 민주화에 대한 간절함이 줄었고 민중가요 노래패들의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죠. 저는 삶의 애환이

깃든 노래는 모두 민중가요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민중의 삶을 주제로 한 노래를 주로 부르지요. 그런데 피어리스 던은 정해 놓은 주제 안에서 락을 하시나요?

위 =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동아리에서 특별히 세워둔 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적인 성향을 따죠. 때때로 가사에 사회 문제를 담기도 하지만 ‘즐기는’ 음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기자 =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선입견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에게 외면 받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위 = 맞아요. 저희의 경우 일부 매니아층만 환대를 하고 다수 대중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요. 이러한 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대중적인 곡으로 학내 정기공연을 한 학기 2회씩 열고 있어요. 또한 ‘락’ 하면 떠오르는 긴 머리와 치마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고자 얼마 전 긴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이러한 노력들로 사람들의 인식을 점차 바꿔 나갈 계획이에요. 이런 점에서 매니아에게 한 점도 맞지 않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아리랑이 가끔은 부럽기도 해요.

한 = 아니에요. 저희 노래 역시 사람들이 민중가요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들어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락,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

를 구사해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자 = 결국 락이나 민중가요나 ‘노래’라는 점에서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한 : 저희가 하는 일을 보통 ‘노래운동’이라고 하죠. 노래는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요. 그만큼 노래가 해야 할 몫이 중요하구요. 달라진 대중들과 함께하기 위해 민중가요 또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피어리스 던과 아리랑이 큰 차이점을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피어리스 던이 민중가요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위 = 저도 김광석, 안치환 씨의 노래를 무척 좋아해요. 이런 노래들을 락으로 바꿔 불러봐도 새로울 것 같아요. 아리랑의 노래가 ‘전하는’ 노래라면 저희 노래는 ‘즐기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둘의 장점을 잘 살려 즐기는 것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위성인(미술2) 군과 한이화(정외2) 양.

## 문화단신

### 임권택 감독 대표작 상영회

한국영상자료원(원장=정홍택)이 오늘(2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사실에서 임권택 감독 대표작 10편을 상영한다.

55회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상영회는 오후 2시, 4시에 각각 진행된다. 이번에 상영하는 ‘서편제’ ‘취화선’ 등은 감독이 직접 선정한 것이다.

특히 첫날인 오늘은 임권택 감독이 참석해 관객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문의 521-3147

### ‘죽어도 좋아’ 또 제한상영가

영화 ‘죽어도 좋아’가 재상에서도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김수용, 이하 영등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이번 판정은 영등위 소속위원 15명이 참석해 10

대 5 표결로 결정됐다.

한편 영등위 심의위원인 박상우(온라인게임물소위 위원장)·임정희(영화수입추진소위 위원장)·조영각(영화등급분류소위 위원) 씨는 이번 판정과 심의과정에 이의를 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등위에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들 3명은 성명서를 통해 영등위의 심의과정이 영상물 소비주체의 권리를 무시하고 의사결정근거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클릭!**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www.kpaf.org)

‘민족’ ‘예술’ ‘연합’. 자칫 들기만 해도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십상인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사이트가 있다. 동명의 단체 홈페이지인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 효과음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이름이다. 과장.

하지만 거창한 타이틀에 질리기 전에 한번 더 살펴본다면 곧 이곳이 다양한 콘텐츠와 알찬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술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문화예술칼린더’를 클릭하면 그 달의 문화행사와 행사시간, 장소, 문의제, 공연내용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의 ‘문화예술인 정보’는 문화예술인을 △전문예술인 △도서관인물 △박물관 인물 △문화정책인물 등으로 나누어 소개

하며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월간 민족예술’에 실린 글들을 읽을 수 있다. 사이트 내 항목 중 ‘문화정책연구소’는 정기적으로 문화계 동향과 중요한 행사들을 알려주는 ‘일일문화정책동향’을 가입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문예아카데미’ ‘문예정보봉사업단’ 등 민예총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편

리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선택 다가가기 힘든 외관 때문에 대중성이 부족해 아쉽다. 사이트를 방문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사람들 역시 제한된 범주의 인물들이다. 물론 걸 모습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정보로 가득할 때는 조금 더 대중적인 외양을 살펴 보는 것은 어떨까.

매체비평

TV 편

애니메이션 '한국설화'

"상상력과 현장감의 조우  
우리정서 반영한 새로운 애니"



삼국유사에 이어 지역설화 시리즈를 방영중인  
애니메이션 '한국설화'.

올 여름, 극장가를 수놓는 다수 외국 애  
니메이션의 행렬을 보면서 우리 애니메이

션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  
까웠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  
의 행방불명'이 흥행가도를 달릴 때 우리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과 입지는 반비례  
적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TV 애니메이션의 현실  
역시 일본 편중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재패니메이션  
등 외국문화로 치장된 애니메이션이 전파  
를 타면서 한국적인 소재와 정서를 반영한  
우리 애니메이션은 시청자들과 만날 기회  
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기법을 접목해 한국적 정서와 문화를 전달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  
로 KBS 위성에서 방송되고 있는 '애니멘  
터리 한국설화'가 그것이다. 2000년 7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3년을 달려온 '애니멘

터리 한국설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  
리 민족의 근간인 설화를 애니메이션이라  
는 독특한 그릇에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지닌 최대의 미덕은 바로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상상력과 다큐멘  
터리가 지니는 현장감의 조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각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담  
과 설화가 주는 재미와 감동은 주요한 양  
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한국설화'의 참신한 형식은  
특히 애니메이션의 동양적 정서와 담백  
한 수채화 풍의 그림을 통해 한층 부각된  
다. 한국설화의 주인공들은 3D기법으로 입  
체감을 생명으로 하는 매끄러운 디즈니,  
재패니메이션과는 달리 둔탁하지만, 담백  
하고 소박한 한국적 질감을 보여준다. 또  
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현장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부분은 산수에 깃들여 있는 설

화의 생명을 길어내고, 지역주민들의 생생  
한 증언을 통해 설화가 지니는 의미를 재  
발견한다.

'애니메이션 한국설화'가 지니는 또 하  
나의 장점은 설화의 주요 테마인 충·효·  
지조를 한정된 주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설화를 발굴한  
다는 점이다.

'애니메이션 한국설화'는 47회에 걸쳐  
삼국유사 속에 나타난 설화 시리즈를 방영  
하였고, 현재는 테마를 정해 2개의 설화를  
소개하는 지역설화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  
다. 초기 방송분들은 종래 정사(正史)로 인  
식되었던 일연대사의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으나, 중반부로 들어가면  
서 최대한 민초들의 삶에 주목하고 기존에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민담들을 수집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조와 충효사상에 매몰되  
지 않고 현재에도 유효한 주제를 선정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 프로그램을 시청  
할 때는 이성의 끈을 잠시 풀어놓아야 한  
다. 설화와 민담이 사실이나 판타지의 발  
로이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과 거  
짓의 가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실과  
의미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애니메이션 한국설화'가 풀어내는  
이야기에 진위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시청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지닌 다양한 장  
점들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한국설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판타지와  
리얼리즘이 빛나는 살아있는 재미를 맛  
껏 즐겨보자.

허지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

# 특명, 정숙한 동네를 되살려라!

얼마 전,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현 세  
종로 대사관 청사를 오는 2008년까지 중  
구 정동 1-8번지 옛 덕수궁 터에 지상 15  
층 규모로 신축해 이전하겠다고 발표했  
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는 이를 철회의 논리  
에 의한 부당한 문화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덕수궁터 미 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  
민모임(www.palace119.org)'을 결성해 온라  
인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참가하기 등의 반  
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동지역의 유래와 변천사,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개혁을위함시민연  
대(이하 문화연대)의 김성환 간사와 정동문  
화 탐방을 기획했다. 편집자



덕수궁 옛 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가 지어지면 바로 이런 모습.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중명전.



정동로터리 분수대에서 덕수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덕수궁 돌담길.



행별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지난  
달 28일, 덕수궁 대한문(大南門) 앞은 이런  
저런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맛갈스런 점심  
메뉴를 찾아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부터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을 보며 연신 부채질  
을 해대는 외국인,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  
며 뚫어져라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까지.

적어도 한 달에 2번 덕수궁 주변을 찾는  
다는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김성환 간  
사를 만난 건 약속시간이 30분 지난 뒤였  
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이 '덕수궁 옛 터  
미국대사관 신축 반대' '정동 살리기'로 정  
신없이 바빴을 그의 올 여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박정희 정권 때 도로를 넓힌다고 대한문  
을 지금의 자리로 밀어버렸어요. 한 14m 정  
도.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요. 와~ 덕수궁이 혼자 걸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탐방을 시작하자마자 그가 지난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외치며 붉은 물결을 이  
루던 그 '넓은' 시청 앞 광장을 쓸쓸하게  
바라보며 내뱉은 한마디였다.

## 옛날 옛적에

'정동'은 서울 중구 덕수궁 주변일대로,  
1396년 태조 이성계가 둘째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죽음을 슬퍼해 불인 '정숙한 여인의  
무덤'이라는 능호에서 유래했다. 이후 그 주  
변을 '정숙한 동네'라는 뜻의 정동(貞洞)으로  
불렀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정동(貞洞)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정동은 일  
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으로 결국 그 이름  
처럼 고귀하게 남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정  
동의 수난은 비단 박정희 정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83년 미국 공사관이 처음 들어와 영국,  
러시아, 프랑스 공사관이 차례로 들어닥치  
면서 정동은 견잡을 수 없이 훼손되기 시작  
했다. 미국이 불법으로 정동 땅을 사들이는  
가 하면, 경운궁(덕수궁의 옛 이름)은 고종  
이 세상을 뜨자 방치되다가 일본에 의해 국  
유로 예측되는 등 안락으로 외세의 침략이  
계속됐다.

영국대사관 '성공회성당' 역시 갈기갈기  
찢겨진 당시 정동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1890년대, 기와지붕으로 된 단층의  
한옥들 사이에 거대한 높이의 석조건물이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로마네스크 양식이

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형태라면 말이다. 아  
마 백성들은 원치 않아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그 꼭  
대기에서 조선 땅을 내려다보며 또 무슨 생  
각을 했을까.

## 요즘 정동은

얼마 전 새로 들어선 러시아 대사관이 이  
와 같은 형국을 띠고 있다. 대한제국 황실  
도 경운궁에서 500m 이내에는 외국 공사관  
을 들이지 못하게 제한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의 체취는 물론이요, 서울 도심  
의 혼적과 당시 외교의 주무대 '순탁호텔  
터'가 남아있는 이화여고 곁에는 러시아 대  
사관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서 있으니.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대사  
관 신축문제를 보면 이마저도 '새발의 피'  
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지상 8층 규모의 직원용 아파트와 지상 15  
층, 지하 1층짜리 대사관의 부지는 다음아  
니라 '선원전' 터이기 때문이다. 선원전이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영정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던 곳을 말한다. 일제 때는 길  
이 뚫리고 경성제일여고(옛 경기여고)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총재 사택으로 이용됐  
던, 정동지역에서도 가장 한이 깊게 서린  
곳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1900년 초 지도와 최근  
지도를 비교하며 "덕수궁 부속건물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라 궁터의 주춧돌이나 초  
석, 기와장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을 것"이  
라고 확신했다.

또한 문화재 매장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정부의 지표조사 실시계획 발표에 대해 "선  
원전 터라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며 "발굴이 능사가 아니라, 역사  
조형물은 있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나귀 지나가던 오  
솔길'이 지금은 미대사관 부지라는 이유만  
으로 전경들에 의해 감시·통제되고 있다  
는 사실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왼편  
은 '하비브 하우스(Habib house)'라는 미국  
소유 건물이 있어 사진촬영이 불가능하고  
오른쪽은 덕수궁이니가 가능하다니, 가운  
대 놓인 도로가 꼭 넘어지 못할 국경선처럼 느껴  
졌다.

"그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도 일제가 조선  
의 정기를 쫓았다고 궁궐을 반 토막내면서  
만든 거예요. 왜 연인이 함께 거닐던 해어

진다는 속설 있었어요. 바로 저기가 일본  
고등법원이 있던 곳이거든요."

돌담을 따라 걸던 김 간사가 가리킨 것은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그는 또 순종의 즉  
위식이 열렸던 돈덕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  
지게 된 사연 등 덕수궁 돌담길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을 귀뻐해  
주었다.

걸고싶은 거리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  
는 덕수궁 돌담길. 바람부는 날 스카프를  
날리며 걸다보면, 멧과 낭만을 한껏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길이 실은 가슴 아  
픈 역사의 뒤안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얼마나 될까.

마지막으로 발굴음을 재촉한 곳은 바로  
'중명전'. 그곳은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체결한 치욕의 현장이며, 고종  
이 마지막 숨을 거둔 한 맺힌 비운의 공간  
이었다. 지금은 개인사무실로 이용되어 건  
물 한 쪽 귀퉁이에 세워진 안내판만이 지난  
기억을 대신하고 있었다.

다음날 다시 찾은 대한문 앞에서 김성환  
간사는 '제2의 경술국치 덕수궁 되찾기 퍼  
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1910년 일본에  
게 주권을 빼앗겼던 그 때 심정을 되새겨,  
옛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행사는 문화연대를 비롯  
해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길을 지나다  
몇몇 행인들이 함께 참석해 진행됐다. 덕수  
궁의 목은 한을 풀기 위해 치러진 고사와 살  
풀이, 촛불행진 등은 비교적 진지한 분위  
기 속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정동은 단순히 옛날 궁궐터가 아니에요.  
외세에 의해 능욕 당하고 유린 당한 우리  
근대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죠."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김  
간사가 몇 번이나 강조한 말이다.  
"덕수궁을 지나는 많은 이들에게 정동은  
아직 숲으로 울창한 원터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단지 집 근처 여느  
동네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시청 앞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대~한민  
국'도 그 때처럼 비로소 진짜 우리의 모습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대한제국 당시 외교의 중심무대 순탁호텔의 터. 지금은  
이화여고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조선 역대 왕들의 제사를 지내던 '선원전' 터. 미국이 대  
사관 신축부지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있는 장소이다.



덕수궁의 목은 한을 풀고자 살풀이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 엄태극 기자·문화연대



## 메아리

### 판도라의 교환

▲금기의 상자를 열어 인간에게 고통  
을 떨칠 수 없게 한 판도라. 모순되게도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  
인'이다. 제우스에게 아름다운 외모 등  
많은 선물을 받은 판도라가 호기심 때문  
에 세상에 모든 악을 퍼뜨린 장본인이라  
짐이 의외다. 주어진 혜택을 모두 누리  
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더욱이 판  
도라가 황급히 뚜껑을 닫아 희망은 상자  
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다.

▲장상 씨에 이어 장대한 씨도 치명적  
인 도덕적 결함을 드러내며 국무총리 인  
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인사청문회에  
서 증여세 누락, 위장 전입 등 장상 씨  
보다 더 많은 위법 사실만 밝혀진 채 짚  
은 국무총리 서리직을 마감했다. 그렇게  
각각 교육·언론계 권력가들의 '정치권  
력'으로의 영역 넓힘'은 잠깐의 '나들이'  
로 끝났다. 정권 말 국정운영에는 차질  
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놀라

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사회의 소위  
상류층은 분야를 막론하고 뭔가 비슷하  
다는 점.

▲탈세,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위장  
전입... 엄연히 법을 어긴 행동이 분명  
하지만 상류층들은 버젓이 아무런 제약  
을 받지 않고 이를 일삼는다. 추악한 범  
죄지만 이들은 '폼위 있게' 저지른다. 위  
법을 감시·제약해야하는 기관과의 끈끈  
한 연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상류층의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들도 자녀교육에는 매우  
열성적이다.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자녀  
를 강남 8학군에서 공부시키겠다는 '열  
의'나, 유학을 보내 미국국적을 취득하  
게 하는 모습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서구에서는 사  
회 고위층 인사에게 공공봉사와 재산의  
사회환원 등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전통이 있다. 반면 경제적 부

와 명예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의 고위  
층은 현재의 부와 명예도 모자라 지역주  
의와 학벌 등 '악'을 쏟아내며 서로 연  
대해 기득권 강화에만 힘쓰고 있다. 판  
도라의 상자 속에는 희망이 남아있다.  
이제 특권계층의 자성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사회의 상류층이 '진정한' 특권의식  
을 갖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다.

김도영 대학부장  
circus@dongguk.edu